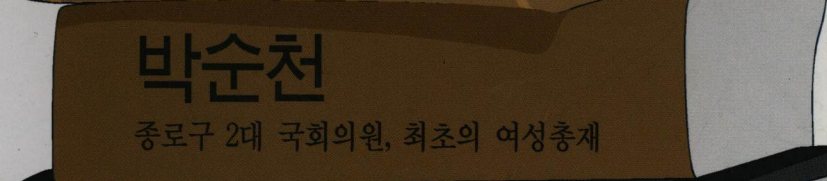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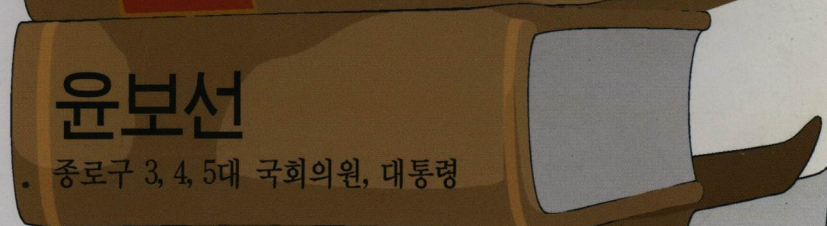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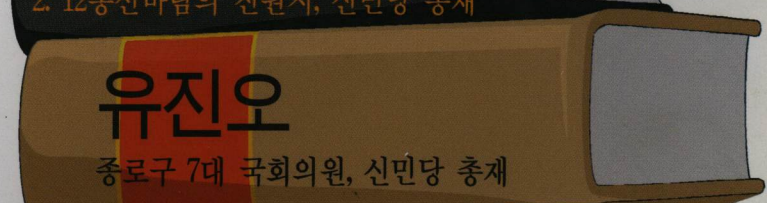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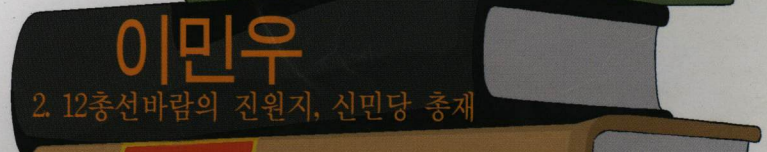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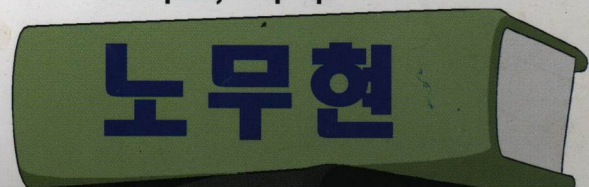




종로는 정통야당의
맥을 이어온 한국정치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이 걸어온 길

- 46년 8월 5일생(당 50세)
- 부산상고 졸업
- 제17회 사법고시 합격
- 대전 지방법원 판사
- YMCA 이사
- 공해문제연구소 이사
-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87년 6월항쟁)
- 13대 국회의원
- 국회 5공비리 조사특위위원(청문회)
- 민주당 대변인
- 민주당 기획조정실장
- 민주당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14대 대통령 선거)
- 민주당 최고위원, 부총재
- (현)사단법인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이사장
- (현)민주당 종로지구당 위원장

지구당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47 보신빌딩 501호 (종각 맞은편 제일은행 옆)
전화 · 737-2772 / FAX · 723-8370 / 천리안, 하이텔 · Go mass / 후원회 · 723-8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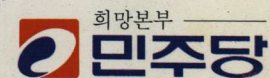
당원응

종로가 바뀌면
한국정치가 확 바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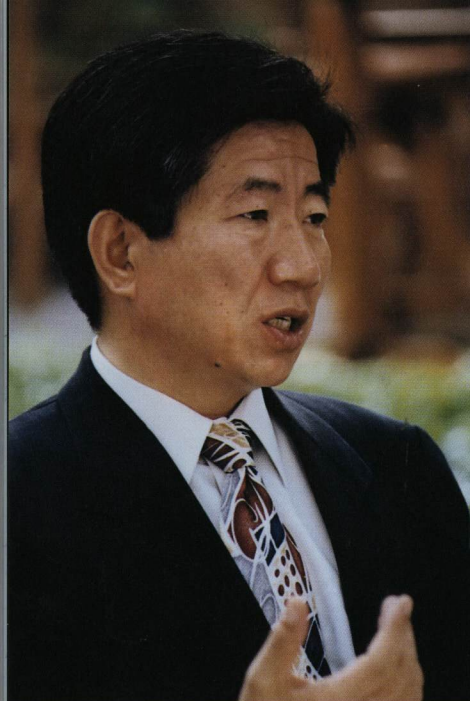


종로의 명예혁명

노 무 현 이 하겠습니다



43422



노무현은 왜 종로에 나섰는가?

종로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받아 한국정치를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혼란스러울때 마다 종로는 그 중심을 바로 잡아 왔습니다.

종로는 과거 집권당의 횡포가 심해질 때 여당을 단호히 심판했고 야당이 분열되어 지리멸렬할 때는 정통성 있는 야당의 거목들을 당선시켰습니다.

장면 총리, 윤보선 대통령, 박순천 여사, 유진오 총재, 이민우 총재에 이르기까지

그 분명한 선택을 해 온 종로의 혼을 이어받아 위기에 처한 한국정치를 바꾸고자 합니다.

나라의 심장 종로에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또 정치인이 소신을 잃어버리면 국민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지 1년도 안되는 서울시장, 종로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을 바지저고리로 만들면서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자기 치적으로 삼는 정치인, 또 16년간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서는 하루 아침에 이리 저리 떠도는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종로유권자를 우롱하는 일입니다.

한국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로의 정치인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로다운 새인물이 필요합니다. 정치1번지인 종로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종로의 국회의원은

깨끗해야 합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모으고 선거를 흔탁하게 하는 졸부정치는 안됩니다. 또 돈을 배경으로 명예를 하나 더 얻기 위해 정치를 해서도 안됩니다.

사람은 제각기 할 일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 경제인은 경제! 군인은 국방!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결과가 정치를 망쳤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오로지 자기 당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생활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그저 어느 정당으로 나가서 어느 지역출신 사람들의 몰표를 받을까만 생각하는 무소신 정치인은 이제 발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용기있는 소신. 정치인 제일의 덕목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했다는 정치인의 말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의 오른팔이네 하며 권세를 파는 정치인의 허풍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헛꿈을 팔지 않습니다. 또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헛꿈을 믿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누구나 서민의 대변자라고들 합니다.

잠바 하나 걸치고 시장을 다니면서 웃는 얼굴을 보인다고 서민을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선거에 떨어져 본 사람만이 국민의 무서움을 알 듯이 자기 재산이 수백억씩 되는 사람이나 16년을 무사안일하게 살아온 정치인, 그들은 결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뼈저림을 알지 못합니다. 진정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 온 사람. 삶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어 본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뿔아주면 무언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국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젊고 소신있고 정직한 정치인이 있다면 우리는 정치에 한가닥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국회에 가서 청와대 문지기, 거수기 역할이나 하고 있다면 진정 종로의 도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종로에
노무현이 있습니다



노무현은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정표 하나

공부하는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불과 10년전만 해도 국회의원들의 계급장은 관록과 경륜이었습니다. 그러다 13대 국회에서부터 노무현, 이해찬, 이철 등이 공부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였고 국민들은 많은 지지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4대 국회에서부터는 이런 국민적 감시를 통해 국회의원들 사이에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철학이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의 의정활동은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베스트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의정활동 하면 노무현이라는 이미지도 생겨났습니다.

이정표 셋

합리적이고 정정당당한 민주주의의 신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93년 2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노무현은 최연소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부산시장 선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태풍 앞에서 무려 37%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지역대결이 아닌 인물대결이라는 신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노무현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치풍토를 바꿔나가는 민주주의의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정표 넷

탄탄한 정치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노무현은 제1야당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최연소 최고위원, 부총재를 거치며 꾸준히 경륜과 관록을 쌓아 왔고 또 여러번에 걸쳐 국회의원 공천 심사를 해 온 힘이 있습니다.

또 노무현은 첨단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스타일을 연구해 왔습니다. 「뉴리더」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여 명실상부한 정보화시대 정치의 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 88년 5공비리 청문회

이정표 둘

소신있는 결단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자신의 당선만을 위해서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3당통합이 호남만을 고립시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기에 김영삼총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따라갔으면 지금쯤 잘나가는 정치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렵게 야당을 통합해 627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사욕을 위해 야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지 김대중 총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노무현은 옳지 않은 길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정표 다섯

한국정치의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시장이 바뀌면 미리 준비해 온 최고의 브레인 200명이 함께 뉴욕시에 들어가 일을 합니다. 노무현은 우리나라의 정권교체 방법도 여당에 빌붙거나 지역감정의 대결이 아닌 정정당당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은 이미 93년 사단법인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창립, 운영하면서 지난 627 선거에서 전국에 24명의 시장·군수, 90여명의 시의원, 도의원 및 250여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했습니다.

2000년대의 우리 정치는 특정지역의 국회의원 몇 심명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쌓은 행정경험과 훈련받은 정치인들의 힘을 모아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노무현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정치인입니다.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편에 서리라 다짐했던 어린 시절……

우 리 또래 사람들이 모두 그랬듯이 나의 어린시절도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한 학급에서 나 혼자만 필통을 사지 못해 누나에게서 물려받은 헌 필통을 새 필통과 바꾸자고 친구를 졸라대던 일, 사진회비를 못내어 몇번이나 집으로 쫓겨오던 일, 자취·가정교사·회사기숙사를 전전했던 고등학교 시절… 그 중에서도 고3시절의 어느 늦가을, 잘 곳이 없어 학교교실에서 이틀을 자고 밤새껏 얼마나 이를 악물고 떨었는지 이튿날 온종일 이가 아파 밥도 못 먹었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생과 서러움 속에서 자라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출세를 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리라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써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남이야 죽든말든 나 혼자만 잘 살자면 판사·변호사 시절……

판 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보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많고 굶실거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살맛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던 어린시절의 꿈은 차츰 잊어 버렸습니다.

실상 변호사란 직업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못배운 사람 에겐 없느니만 못한 것, 돈 없이는 변호사를 쓸 수가 없다 보니 자연히 변호사는 있는 사람들의 편이었습니다.

나는 눈 딱 감고 이웃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왜 변호사는 돈 있는 사람편만 드느냐?”고 물을라 치면 “세상에 있는것 치고 돈 있는 사람 편하게 안되어 있는 게 어디 있더냐”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국 출세를 하고 보니 마음도 달라졌던 것입니다.

내 삶의 전환……

인권 변호사로, 재야 운동가로

그 시절 나는 내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흔한 주장을 방패삼아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 삶을 온통 뒤바꾸어 놓은 사건을 만났습니다. 이른바 ‘부림사건’.

81년, 출범한 지 한 돌을 맞은 5공정권이 양심적인 청년학생들을 몽땅 잡아다 온갖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5년, 7년씩 감옥에 넣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온 몸이 시커멓게 멍이 들고 발톱이

새까맣게 죽어버린 청년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 57일 동안이나 소식이 없는 아들을 찾아 미친듯이 헤매고 다닌 어머니들…

누가, 무엇 때문에 이들을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았는지,

어린시절의 고통과 울분이 되살아 났습니다.

나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리라 결심 앞에서, 언제 어디로 끌려가 병신이 될지, 언제 무슨 죄목으로 감옥에 끌려갈지 모르는 위험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조그만 농장이나 별장을 갖고 싶었던 염치없는 꿈도, 자식만은 외국까지 유학을 보내 고등학교밖에 못나온 우리 부부의 한을 풀어보겠다던 희망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 소망 하나

그 후부터 학원안정법, 2.12총선, 개헌 헌판식,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4.13 호헌 반대,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나는 강연·집회·시위·상담·변론에 전력했습니다.

그 댓가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영장청구와 구속, 그리고 변호사 업무의 정지…

그러던 중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로부터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나는 당선이 손쉬운 지역구를 주겠다는 배려(?)를 거절하며 5공 쿠데타의 주역 허삼수씨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한 정치지만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너무나 할 일이 많았습니다.

서민들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노조로, 철거촌으로…

그곳에는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우리 이웃들의 너무나 절박한 삶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욕에 비해 아쉬움이 많았던 13대 국회의원 생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로 나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나는 김영삼씨를 따라가지 않은 정치인,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지역감정에 맞선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또 정치를 바로잡고자 종로에 나서 정치의 전환점을 만든 용기있는 승리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종로의 정치인들에게 살아온 길을 묻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 87년 6월 항쟁, 92년 대통령 선거,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시절,

그때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종로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